

제8회 금강산림대법회

보성 스님 (조계총림 방장)

“남의 것 말고 ‘자기 금강경’ 공부하세요”

일체 선한 법을 닦되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이 닦아야 위없는 부처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금강경>...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 자리에 앉으니 이미 <금강경>은 대중과 더불어 다 설해 마쳤습니다.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높아지면 탐진치(貪瞋癡) 삼독이 더욱 깊어지더라’는 것을 설교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금강경>의 대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자리에는 얼마 전 태풍이 불어 닦쳤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여덟 번째 금강산림이 어렵겠구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찰 종무원들을 비롯한 여러 대중들의 노력으로 무난히 오늘 이렇게 법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렵다 생각하면 그 어려움은 한층이 없습니다. 항상 하면 된다는 실천 정신을 갖고 임하면 그 일은 이뤄집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또 법문을 듣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금강경>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도 많고 <금강경>을 사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강경>과 인연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금강경> 수행은 어렵습니다.

<금강경> 법회를 하는 곳은 많습니니다. 그러나 <금강경>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 행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드뭅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금강경은 나의 <금강경>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깊은 뜻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진전이 없습니다.

둘이 아닌 <금강경>을 받들어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수자상을 너무 다투어 말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탐진치 삼독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금강산림은 이 자리를 통해 어느 정도 각자가 얻어 가는 지 그릇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그릇에 담습니다. 큰 그릇이라면 바닷물을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몇 그릇에 담아도 조금 밖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고 강연이라는 행위가 참 힘이 듭니다. 미안한 말로 여기 모두는 저보다 젊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젊었을 때 치열해야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는 생각이 제일 몸살 생각입니다. <금강경>을 보고 듣는 시간에는 그 것부터 내 버려야 합니다.

<금강경>의 공덕은 여러 군데서도 나오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스님세계에서 환갑잔치를 한다고 해서 피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인연이 닿아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잔치를 피해서 갔는데 미국에 가니 아는 사람이 있어 1주일을 얻어먹게 됐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온 한 신도를 만났습니다.

그 보살이 <금강경>을 읽으며 얻은 공덕을 털어놨습니다. 그 보살이 한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저녁 10시 경에 난데없이 경찰들이 한 사나이를 묶어서 왔습니다. 살인강도의 현장검증을 위해 부득이 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함께 온 경찰이 묶여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입니까.”

“이 집이 맞습니다.”

집 주인인 보살에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 하셨습니다?”

“사생활입니다. 밝히기 어렵습니다.”

“사생활이지만 현장검증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보살은 경찰에게 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을 먹고 오전 8시부터 집안일을 한 다음 정리를 하고 독경을 합니다.”



보성 스님은...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50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거쳐 송광사 주지와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달라이라마, 티크한, 대만 성운 대사 등 세계적인 고승과 깊은 교분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역임했으며, 현재 승보총찰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으로 있다. 송광사 산내암자 삼일암에 주석하고 있다.

“상이 높아지면 삼독이 깊어집니다”

자기 금강경과 부처님 금강경

하나되면 마음 비우기 성공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독경을 합니까.” “<금강경>을 독경합니다.” 경찰이 묶여온 사나이에 물었습니다. “당시 왜 이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옆집으로 답을 타서 넘어갔습니까?”

그 사나이가 답한 말입니다. “안에서 아주머니가 독경을 하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으로 들어가려 하니 아주 기운이 센 젊은이가 나타나 이놈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사나이는 답을 넘어 이웃집으로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보살의 집은 오전에 독경하고 오후에는 시장을 보는데 문을 열어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금강경>을 독경하고부터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비워지니 무애자재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보살이 욕심도 없어지고 <금강경> 정신으로 살 수 있는 뜻이 생겼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다비우고 <금강경>을 독송하면 내 <금강경>과 부처님 <금강경>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금강경> 그만 이루고 내 <금강경>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은 어떻게 비워야 됩니까.

또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근에 운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 비구니가 있는데 남동생과 함께 출가를 했습니다. 그 친정어머니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는 동네 모든 삼당을 도맡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에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싸우다보니 집안에서 오물을 뿌렸습니니다. 이웃들이 너무 냄새가 고약해했습니다. 그때 그 비구니 스님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싸우는 곳으로 가 말없이 방바닥을 살살 닦았습니다. 옆에서 싸우든 말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닦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물만 닦아내고 말이 없으니 싸우던 부부가 자연스럽게 싸움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멈추고 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걸레질만 할뿐이었습니다. 일이 다 마친 후 그 어머니가 ‘이제 다 싸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도 평정심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아시겠습니까. 싸우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저 부지런히 닦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방만 닦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총틀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고 닦는 것입니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식에서 카메라가 92세인 반 총장의 어머니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어떤 힘을 기울여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참 신실한 불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 잘 벌고 무엇 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저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고 원을 세워 아들에게 모범이 됐을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절로 자신도 원을 세워 열심히 정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돈 많이 벌여오라, 술 마시면 빨리 들어오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원은 절 앞의 저 물에 갖다 버리세요.

오물만 제거하는 그 보살처럼 스스로를 닦는 그 모습을 보이면 그 것이 바로 일등가는 부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없는 하심의 경지입니다.

어정어정하다보면 시간은 금방 갑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머니처럼 그런 원을 세우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금강경>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법회에 왔는데 다 늘어 얼굴도 찌그러져 보여 줄 것도 없습니다. 제 <금강경>도 설하려하니 다 찌그러져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강경> 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원력을 세우면 그에 따른 힘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 송광사 설법전에서 열린 금강산림대법회에는 500여 대중이 운집해 방장 보성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학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Description. Courses include Basic Course (3 semesters), Intermediate Course (3 semesters), Practice Class (1 year), and Specialized Course (1 year).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2년 11월 18일까지
◆개강일시: 2012년 11월 19일(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6시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원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심인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모집

▶ 밀교사상과 수행 (密敎思想·修行) ◀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일반불자, 승려(비구, 비구니) 법사
강 의 : 매주 일요일 12시 ~ 1시 30분 <점심공양>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법복착용>, 필기도구는 제공
등록금 : 100,000원 / 교재비 : 30,000원

▶ 공부할 과목 ◀ 지도법사: 법운(法雲)스님

- ☐ 근본불교: 비밀불교의 기본사상(秘密佛敎의 基本思想)
☐ 밀교란: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 밀교의 삼대사상: 1 육대(六大) = 체(體): 地, 水, 火, 風, 空, 識
2 사만(四曼) = 상(相): ① 대만다라(大曼荼羅) ② 법만다라(法曼荼羅)
3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 ④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
3 삼밀(三密) = 용(用): 심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
☐ 밀교의 만다라: ①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②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 밀교의 삼륜신: ① 자성륜신(自性輪身) ② 정법륜신(正法輪身) ③ 교령륜신(敎令輪身)
☐ 현교의 삼신불: ① 법신(法身)<비로자나> ② 보신(報身)<노사나> ③ 화신(化身)<석가모니불>
☐ 위빠사나 수행법, 탄트라와 명상법
☐ 육자진언염송 <옴마니반메훎>
☐ 현교와 밀교성불론의 차이점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031)692-3653, 011-9356-3653

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